

甘露를 받으면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다

감로

감로 또는 감로수는 불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다. 청법가에도 감로의 법을 설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부처님 전에 찻물공양을 올릴 때 그 찻물을 감로수라고 한다. 열반경에도 감로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나온다. 그렇다고 감로수는 불교인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도 감로수가 있다. 성경에는 '이슬'이라고 되어 있다. 중국어성경에서는 감로(甘露)라고 하고 있다. 아래 그림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



감로는 육각형 형태의 광선이다

다. 태양빛에는 맛과 향이 없지만 감로의 광선은 맛과 향이 있다. 단맛과 백합화꽃 향기가 난다. 셋째, 승리제단에는 촬영된 감로사진이 수천장이 있다.

감로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등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감로가 조작 가능한 것인지 감정을 의뢰했다. - 감정 내용은 아래 참조



세계 최고의 전문가 로버트 J. 그로든(Robert J. Groden). 그는 1975년부터 미국 하원의 사진 전문 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정치암살 관련 하원선발위원회

의 사진 보좌 전문역을 맡았었다. 1000여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고 케네디 암살사건 사진증거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환란이다. 감로는 죽을병을 고치고 건강과 행복을 주는 신비한 물질이며, 괴질에 안 걸리게 하는 생명물질이다. 구세주 조희성님은 지난 2003년 사스가 창궐할 때 감로로써 대한민국을 지킨 일례가 있다. -2003.6.15자 411호 본보 참조

믿지 않는 사람만 불행하게 된다. 지금은 대변혁의 시대이다.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직 감로를 받아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감로가 내리는 승리제단으로 어서 빨리 오라!

다의 말씀을 감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붓다의 말씀이 중생(衆生)의 몸과 마음을 기르는 묘한 맛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과사전에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불사약(不死藥)이라는 말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전승되어 오는 영생 이야기의 회춘의 샘(Fountain of youth),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 생명의 묘약(elixir of life), 생명물(Water of Life), 인도의 리그베다에도 아무리타(Amrita), 넥타와 같은 말이다.

감로의 실체를 처음 밝힌 분

이렇게 문헌상에서만 나오는 감로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분이 있다. 승리제단의 조희성님이다. 그분이 강론할 때 감로가 나온다. 감로는 카메라로 촬영된다. 감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로는 광선이다. 그런데 세상의 광선은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감로의 광선은 곡선으로 움직인다. 둘째, 광선이지만 맛과 향이 있

또한 강증산 선생이 지으신 중화경 88장에도 나온다. "佛日出時불일출시에 降法雨露강법우로하리니 世間眼目세간안목이 今茲始開금지시개라. 有緣者유연자는 皆悉開知개심문지하리라 好道遷佛호도전불하여 佛成人事불성인사하리라."

모든 경전에 다 기록된 감로

감로는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고, 격암유록에도 나온다. 먼저 도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 "天地相合, 以降甘露, 莫之令而自均.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단 이슬을 내리듯이 백성은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다음은 격암유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周易書 14 [頤卦]

- 1. 以色示形, 中實而外則枯也. 色是隨自己的非學教也了.
- 2. 色以形而示, 則色隨非學也. 非學教者, 非學教也. 色, 非學教也. 色, 非學教也.
- 3.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4.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5.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6.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7.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8.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9.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 10.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其外則枯也.

『격암유록 해인가』

"秦皇漢武求不老草不死藥 어데잇소 虹霓七色雲霧中 甘露如雨海印이라 火雨露三豐海印이라 /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려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어디잇소. 일곱색의 무지개, 구름안개 중에 감로가 비와 같으니 이것이 해인이라.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 풍부함이 해인이다"

그렇다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감로의 뜻을 보자. "천상에 있는 신들이 항상 마시는 영묘한 술[또는 약]인 산스크리트어 아모리타(amrita), 팔리어로 아마타(amata)를 한역(漢譯) 불교문헌에서는 단 이슬 즉 감로(甘露)라고 하였다. 이 술을 마시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여 불사(不死)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불

로버트의 감로사진 감정서

이날 나는 희고 붉은 흐릿한 이미지들이 찍힌 사진 10장과 네가티브 원판 필름 15개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미지들은 일정치 않은 형태이며 대부분 다섯 프레임씩 잘라진 얇고 긴 필름 스트립의 한 프레임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인접한 프레임에도 일관되게 존재하며 그 중 하나는 인접한 세 프레임에서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티브 원판들로 구성된 9개 필름 스트립들은 아래 5개 회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개: 코닥 골드 100 타입 5095
- 2개: 후지 100
- 2개: 사쿠라 칼라 SP-V100
- 1개: 칼리슈퍼 SR100
- 1개: 롯데

LED(발광소자)는 1988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날짜를 찍었습니다. 몇몇은 사진 속에 있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들은 한 한국사람이 군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네가티브 필름 원판들을 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1. 네가티브 원판들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았다. 허위된 이미지들은 사진에 찍



감정에 사용된 사진들

힌 자연 그대로 이고 촬영 후에 첨가되지 않았다.

2. 선명도와 밝기, 색조 선명도를 볼 때 이것들은 원본 필름들이고 복제판이 아니다. 이 필름들은 복제기술을 암시하는 어떠한 에어부러시나 비유형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

3. 한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진에서 카메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흐릿한 검붉은 이미지의 촛점 도수는 더 선명해 보이기 보다는 카메라

에 훨씬 가까이 있는 이미지들과 일치한다.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4. 그 흐릿한 이미지들은 거의 모든 네가티브 원판에서 완전 무작위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세프레임이 인접해 있는 한 세트의 필름에서는 촬영자는 이동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대신 청중을 향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찍은 사진에서는 프레임 안에 그 흐릿한 이미지와 그 위치가 실제적으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마치 그 이미지가 좌측으로 움직이는 카메라를 따라 다녔던 것 같다.

이하 중략

결론

1. 네가티브 필름 원판 자체는 진품이다.

2. 인화한 사진은 원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설사 원판이 진품이라 할지라도 사진 변형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는 것과 사진자체의 실물을 보는데, 이 사진의 조작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느껴진다.

4. 형태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부족함으로 보는 이에게 어떤 특정 실체가 이 현상을 야기한다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나는 그 흐릿한 이미지들의 원인이나

근원을 식별할 수 없다.

6. 무작위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흐릿한 이미지들 때문에, 나는 몇몇 카메라 내의 LED(발광소자) 문자 발생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7. 흐릿한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보아 렌즈플래머-카메라 렌즈 조직 내에서 발생한 빛의 산란현상- 이런 이미지들을 발생케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8. 흐릿한 이미지들이 원판 프레임 안에만 존재하고 프레임 외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의광조사-빛을 임의로 비추는 방법- 이런 이미지들을 발생케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9. 18년간 사진분석가로 일하면서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플래시 케이 블래쉬 빛의 반사로 생기는 현상이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그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다.

10. 나는 이 사진들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흐릿한 이미지를 발생케한 원인을 규정 짓지 못하겠다.

11. 나는 이 이미지들 혹은 그 출처를 좀 더 파악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이미지 디블러링 -컴퓨터로 이미지의 흐릿한 것을 제거하는 기술- 하면 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로버트 J. 그로든
1994년 3월 12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0>
“하나님이 되면 날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신경세포로 변하여,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이 되면 날게 된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멋있고 신나는 일인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날게 되면 썩을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100%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몸

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때에 나도 좀 날게 해달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애걸해도 되지 않는다. 돈이나 금덩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지 그까짓 돈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오직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시상하부(視床下部)1

시상하부의 주임무는 내부에 평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몸이 배고픔 목마름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분노와 공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시상하부가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상하부의 기능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총분이 시상하부에서 신경섬유를 통하여 척수로 전달되고, 척수에서는 부신 안쪽의 수질에서 시냅스합니다. 그러면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모세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집니다. 부신(콩팥)의 수질과 피질은 발생적으로 다른 조직입니다. 부신피질은 주로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분비샘이며, 부신수질은 변형된 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확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해마가 영향을 받아 해마에 있는 시원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는데 해마의 시원세포들이 소멸되어 해마의 크기가 축소됩니다. 줄어든 해마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해마의 위축은 장기적인 기억장애를 초래합니다. 단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커피, 사탕, 과자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빨리 분해되어 뇌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즉각적 효과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신피질의 코르티솔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 연결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경로라 합니다. 이 과정이 코르티솔에 의한 단기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카테콜아민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작용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증가합니다. 단기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빨리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의 이뇨작용도 중단됩니다. 이렇게 모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골격근을 움직여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합니다. 이런 단기 스트레스 반응은 자동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만듭니다.

장시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시상하부 실방핵(PVN ; paraventricular nucleus)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인자(CRF ;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 ; adrenal corticotropic hormone)을 생성해 부신피

질로 내려보냅니다.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 받은 부신피질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무기질 코르티솔과 당질 코르티솔로 구분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솔은 나트륨 이온과 수분을 보존하고, 칼륨 이온은 방출합니다. 당질 코르티솔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글루코스, 즉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억제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확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해마가 영향을 받아 해마에 있는 시원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는데 해마의 시원세포들이 소멸되어 해마의 크기가 축소됩니다. 줄어든 해마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해마의 위축은 장기적인 기억장애를 초래합니다. 단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커피, 사탕, 과자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빨리 분해되어 뇌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즉각적 효과를 보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한번 높아져버리면 조금만 떨어뜨려도 높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에 저장된 글루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신속히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자를 섭취하는 것이 비만과 체질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김주호 기자

인사발령

- 승사 : 김건균 5 지역 지회장 : 강춘희
- 6지역장 : 조건우 5 지역 부지회장 : 신순이

2003년 사스(SARS)를 막아낸 구세주의 감로

구세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괴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